

고은 불교대하소설



"대해... 그대가 편지 수심이 서린 듯 하나 그려"라는 인담의 지적은 약하게 손화살이 땅에 박히지 못하고 그냥 놓여지는 것처럼 슬쩍 그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해가 그 지적에 바로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 두꺼운 손바닥을 두 손바닥의 굵은 손금 서너개를 서로 맞부딪게 할 따름이었다.

은 관선(官船)에 탄 수객들의 인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무욕도의 밤중이아말로 대해가 실컷 단잠을 자는 시간이었다. 그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음이나 짐승 따위보다 못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처럼 마치 놀음이나 무더기 짝이 없는 짐승처럼 아무런 생각 따위 없이 바로 잠속에 떨어버리었다.

하늘 속의 궁전들

만약 그가 배운 것이 있었다면 재빨리 그 열사하게서 '파도를 따라 흐름을 같이 하리라(隨波逐浪)'라는 펴도는 문자로라도 맞받아 버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해의 입은 굳이 열렬 생각이 없었다.

그저 무너진 집의 재목들과 기둥의 줄, 흙더미를 벵어리가 되어 치우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느새 저녁이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저녁무렵이 오기를 바란다. 그 일이 남의 일일 경우는 더욱 그렇고 재 일일 경우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무욕도의 수행 가운데서 오후의 작업이나 물러는 밤들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하는 것 말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비가 퍼붓는다 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비를 맞고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말 한 마디 없이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인담이 이 섬을 개척할 때부터 내려온 일과와 내력인지 모른다.

대해가 이곳에 오기 전 조선 3천리의 산하를 떠돌기 위해서 떠난 수월이 살고 있을 때 "일하기 싫어서 종이 되었는데 더 많은 일에 파묻히는 것이 중노동일 줄이야" 하고 투덜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너가 그런 수월에게 다그쳤다.

그런 대해가 범담 무너진 것을 치우는 고단한 일로 코를 드르렁거리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숨이 멎듯이 조용하였다.

그런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대해는 실로 오랜만에, 아니 어린 시절의 그것 말고는 단 한번도 꿈이라는 것을



여 짐의 대해는 더욱이 인담의 물레에서 갈고 있는 셈이다. 하루내내 인담의 입선시간을 그대로 따르거나 인담이 하는 일을 거들거나 한두마디 말 상대가 되는 것이다.

그는 본디 두 다리를 꺾어 가부처로 앉아있는 일 따위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바는 무욕도의 삶에 무던히 익숙해졌다고 해서 아주 없어져버린 것도 아니었다.

"무욕도는 끝장이여" 대해의 시체를 보며 인담은 외쳤다

그는 그가 타고난 것으로부터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마치 뿔뿔거리며 걸어가 는 거위와 거위새끼가 똑같이 그려는 것처럼 그는 서너바다로 폭 파지는 햇덩어 리의 딱치같은 그 심경기 짝이 없는 저녁 무렵이면 그 자신도 심경기 짝이 없게 기 지개를 켜 나머지 술술 일어나서 저녁 어 독한 저지로 어슬렁거리기 위해서 나서는 것과 무욕도의 삶이 어떻게 다르다 하리.

대해로서는 차라리 그와 마음 속을 서로 나는 적이 없었던 무진 파멸들이 있던 때였다면 그의 타고난 성품이 함께 피어 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인담의 보이지 않는 위엄 아래 그 그림자 노릇을 하는 역할이 그의 바탕이 송송 드나드는 오랜전 의 고장난 물레방앗간 같은 어둠 한 자락 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어디... 그동안 해놓은 일들 여기 내놓 아보아요. 그것이 공부할 만한 값이 나가 는지 봅시다. 벼룩의 눈 아니면 반대의 발 뿤이 아닌가요?"

아무튼 밤이 되어서도 바로 몸을 방바 닥에 누이지 못하는 선방인지라 대해는 꾸벅꾸벅 졸기에 알맞았다.

대해는 그렇게 풀면서 또 그것이 잠에 위한 것만이 아닌 그만의 공부이기도 한 것일까. 그런 대해를 인담은 그의 몸에 익 은 좌선 때문에 뒷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그런 겉새를 알고도 내버려두고 있었다.

과연 대해는 먹고 자는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의 하찮은 공부로 삼고 있었다. 그는 하루 걸러 한번씩 섬의 꼭대기까지 바람을 쏘이러 다녀왔다.

그런 바람쏘이는 일 때문에 섬 밖의 바다에 이양선(異樣船)이 떠가는 일도 빼앗

겨운 적이 없는 오랜만에 꿈을 꾸는 것이 었다.

다음날 신새벽이었다.

그는 오른쪽 옆구리로 누웠다가 왼쪽 옆구리로 고쳐 누워서 잠을 새로 잔 셈이 었는데 그 잠 속으로 난데없는 꿈이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깃들인 것이다.

그 꿈은 대해까지도 무욕도의 우너가 자주 꿈 속의 예시를 경험하는 일에 풀들 었는지 모르며 무척 선명한 것이었고 상 세한 것이었다.

우람한 한 사내에게 깃들인 꿈이라면 단조로운 것이 알맞을 터인데 그렇지 않 았다. 아마도 대해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 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어린 가느다란 현 (絃)으로 짜여진 마음의 섬세한 악기라도 들어 있었는지 모를 일이기도 하였다.

그가 꾸는 꿈은 다음과 같다.

하 지만 그의 귀는 어느 때보다도 그 바다의 수없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파도소리 도 소음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한 음악이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인데 음악이라기보다 음향 (音響)이었다. 그래서 그 음악은 들린다기 보다 듣는 귀 없이 그저 울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꿈 속의 주인공은 그러나 누군가가 투 달대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귀로써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도다. 눈 으로 들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으리라."

그 말이 있자마자 대해의 눈이 귀를 대 신하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귀가 되어준 것 이다. 그때인 그의 귀는 솟게 꼭 막혀서 물이 말라버린 무물처럼 적막하기 짝이

당신을 모시고..." 라는 중국 청주(淸州)의 사 무리를 대해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이다. 그는 그때 그 술집에서 청주의 노를 군들과 투전을 해서 딱 7백냥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을 바로 그 여인의 발 밑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그녀를 대해의 멧 장 큰 바다 대장부의 방으로 맡아넣었고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부딪칠 을 켜면 바로 불붙는 그 독주를 석잔씩 나눠마시고 그 독주를 서로 몸에 적셔 그 것을 혀로 핥아냈던 것이다.

바로 그런 기쁨까지도 대해의 기억 밑 창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꺼내어 내버린 곳에 집쓸 뿐이 솟아난 것이 아닌가.

저 황해도 장안군 알바라의 지극히 위 험한 난조류의 물너물에 차마를 쓰고 죽 은 처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니

대해의 마음은 이 세상에 없는 꽃새와 하나되어 하늘 속 어느 궁전으로 가고 있었다

지만 그런 처녀 이야기와 전혀 다른 바다 위의 꽃이라니!

대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꽃이! 꽃이! 거기 있으면 안돼... 거기 있으면 빠져죽어!"

그러나 그의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해는 몹시 안타까웠다. 마치 그 꽃은 그의 절박한 마음 일부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엉덩이 울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땃속에서 나온 뒤 깃덩이 불기를 얻어맞 고 첫울음을 운 이래 한번도 운 적이 없 는 이 울음이 가난한 장부 대해가 비록 꿈속에서나마 이렇듯이 울어본 적이 언제 었던가.

아마도 이 오랜만의 커다란 울음이아말 로 그가 들어온 파도소리들이 만들어낸 또하나의 음악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울음이 그친 뒤 바다의 파도 들이 가라앉아 갑작스레 순하다 순한 수 면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본즉 파도위 에 솟아있던 꽃 한송이도 바다 위를 떠나 서 공중으로 오르는 종이였다. 그것은 꽃 이 아니라 새인지 몰랐다.

꽃새!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꽃새! 그러다가 대해의 마음이 그 하늘속의 꽃새 와 하나가 되어 함께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제 대해에게는 대해의 몸만이 바다 위인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설인지 모르 는 그런 곳에 허구적(虛構的)으로 떠 있 을뿐 그의 의식이나 정서 그리고 그의 상상(想像)의 모든 것은 하늘 속의 꽃새 가 되어 멀리 멀리 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실이 끊겨서 날아가버리는 연(燕)처럼.

그런 뒤였다. 그 꽃과 새, 그 대해의 마음 은 하나가 되어 하늘 속의 구름결연 어 는 궁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해의 몸은 어느새 그 하늘 속의 궁전 에까지 올라갔으나 그 궁전의 큰 문 앞 에 서 뚜렷거리다가 구름 한 자락이 발을 헛 디디었다가 저 아래의 세상으로 마구잡이 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 추락과 함께 그가 되친 처절한 절규에 의해서 그의 긴 꿈은 삼산이 조각나 깨어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는 무욕도의 숙소에 서 크게 다친 피부상이 시체로 죽어있었 던 것이다.

새벽에 인담이 대해의 처참한 시체를 보고 그의 공상상이 흔들려서 크게 놀랐 다.

문을 탁 열었다.

"대해가! 대해가!"라는 소리로 아랫채 의 우너 상을 소석들이 달려왔다. 인담은 파랑게 질러서 벌벌 떨고 있었다.

"무욕도는 끝장이여!"라고 외치는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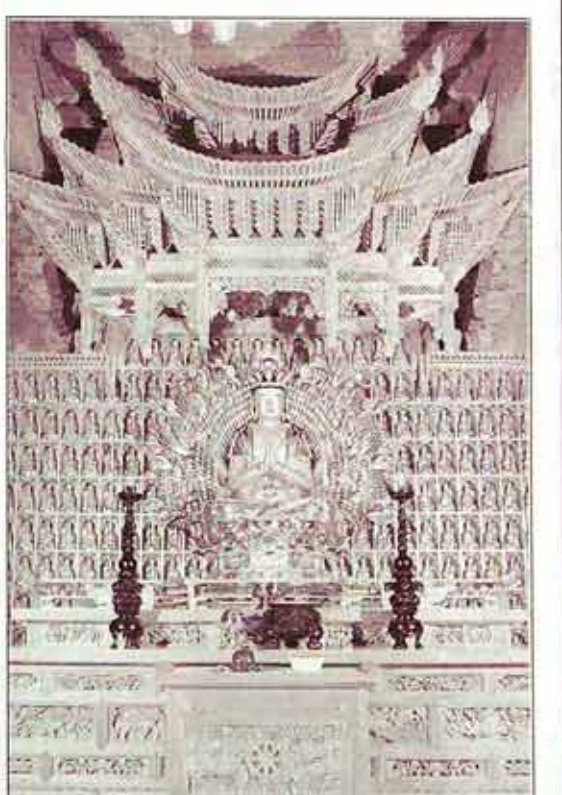
그림·조항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